

LG전자, 스티로폼 포장 사용 안한다!

친환경 경영전략 재생 가능한 펄프 사용 ... 납땜 대신 무연솔더링 적용

전자업계에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LG전자가 국내최초로 납땜을 사용하지 않은 모니터를 출시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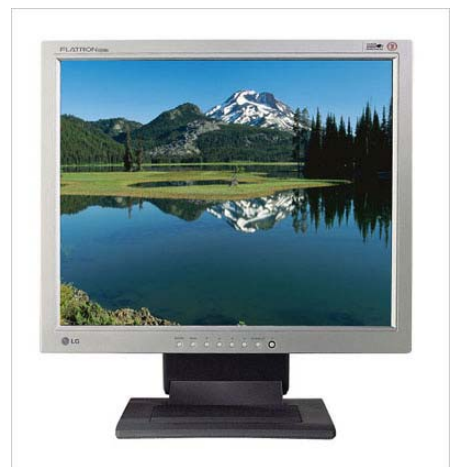
LG전자가 출시한 19인치 FLATRON LCD 모니터(모델명 <L1910BG>)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세계적인 환경규제 추세에 맞추어 납땜과 스티로폼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으로 납땜 대신 무연솔더링을 적용하고 스티로폼 포장 대신 펄프(Pulp)로 포장하는 등 인체에 유해한 요소를 대폭 줄여 가장 강력한 국제적 환경규제 인증인 <TCO03규격>을 획득했다.

흔히 충격 완화를 위해 사용되는 스티로폼은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소각 시 유해한 유독가스가 방출돼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으며, 납은 독성이 강해 현재 납 사용을 규제하는 세계적인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.

LG전자는 이미 2003년에 친환경 경영전략을 확정했는데, 여기에는 >2004년까지 제품 내 유해물질 사용금지 및 규제 이하 수치로 유지 >2004년 말까지 전제품에 Pb Free Soldering(무연솔더링) 적용 >EU가 요구하는 폐제품 회수·처리 시스템 구축 >재활용을 향상 >친환경 제품 >녹색구매제도 확대 등 각국의 환경규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.

LG전자는 LCD TV, 세탁기, 에어컨 등에 납땜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선보인 데 이어 2004년 말까지 모든 제품에 납땜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, EU의 제품별 재활용 기준보다 10% 높은 수준으로 제품 재활용을 적극 관리하고 있다. <조인경 기자>

LG전자가 선보인 친환경 모니터



<Chemical Journal 2004/03/10>